

제목: "어린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소망"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절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과연 무엇이 같아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 어린아이들의 \_\_\_\_\_과 신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2. 어린아이들의 \_\_\_\_\_함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3. 그들을 예수님께로 \_\_\_\_\_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b>합계</b>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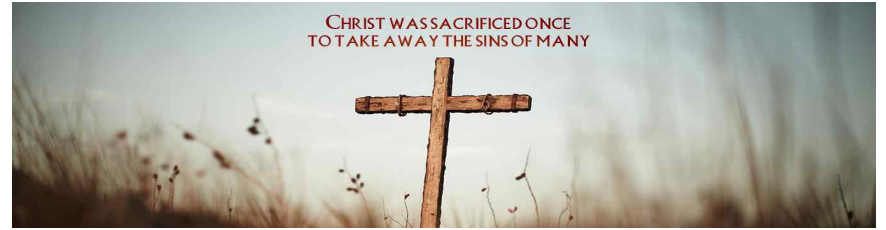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마태복음 18장 1-6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18:1-6 신약 30 페이지 Presider
- 말씀 ..... "어린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소망"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두손들고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철저한 준비)

요즘 들어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경기침체 (Recession)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징조들을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하는 것부터 마켓에 가서 사다가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축된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가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문 공간을 메우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세상은 돈을 준비하라고 한다. 좋은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돈을 되도록이면 아껴 사용하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생명의 준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 그저 빨리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개간하자는 이야기 밖에 없다. 앞으로 30년이면 화성에 백 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망 아닌 소망 밖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돈과 다른 별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라고 하신다. 여기에서 화평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화평인가? 아니면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화평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진정한 화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생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점점 우리를 깨우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있는 일들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지만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소식들은 불안정한 이야기들로 요동친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동일한 소식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과 확신으로 요동친다. 더욱 전하고, 은혜 받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왔다. 지금이 그 때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인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때가 아니라면 언제고 나를 부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자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5월호)

생명의 삶 5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5. 5/6월 행사

5월 1일 (주)	어린이 주일
5월 8일 (주)	아버지 주일
5월 15일 (주)	청년 주일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